

강연차 광주 온 소설가 조정래 씨

# “‘허수아비춤’ 읽고서 모욕감 안 느끼면 사람도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흥분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독자들이 써올린 댓글을 보면서 작가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500만 부 이상 판매돼서 많은 사람이 자극받고 분노했으면 합니다.”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로비실태를 정면으로 파헤친 장편소설 ‘허수아비춤’을 펴내 주목받고 있는 소설가 조정래(67)씨는 21일 광주여성아카데미 초청 강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허수아비춤’은 대기업들의 반사회적이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구조를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는 점을 착안해 쓴 작품”이라며 “기업이 잘해야 잘 살 수 있다고 맹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이 깨쳐야 하는 환상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번 소설은 ‘자발적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반어적인 방법으로 현실사회를 비판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대기업이 든 시민사회든 모욕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도 아니다”고 일



“기업 잘 돼야 잘 살수 있다는 맹신  
환상이었다는 점 각인시키고 싶어”

“후배들이 5·18 다룬 작품 썼으면...  
차기작은 中 무대 장편소설 준비”

침을 놓았다. 조씨는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하며 “최근 남북관계는 6·25 이후 가장 위협적인 안보상황이 됐고, 이는 남북한 당국의 공동책임이며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업적을 세우고 싶어하면서 그 업적에 함몰돼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를 넘어 이제 남은 업적은 통일인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뤄놓은 업적을 (현 정부가)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조씨는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진보와 보수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데도 분단된 대한민국에서는 진보를 빨갱이로 보는 형국이 되고 있다”며 “이는 악이며, 진보와 보수가 아름다운 공존을 누릴 때 그 사회는 발전·발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학자들도 인정하듯 80년 광주의 희생 속에 살아남은 자들의 죄의식이 동태져서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끌었으며 이게 발전과 통일논의를 가능하게 했다”고 진단했다. “한강이후 사회를 다룬 새로운 소설에 대한 구상도 언급했다.

“새 대하소설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40세에 태백산맥을 시작으로 60세에 ‘한강’에 이르기까지 세 편의 대하소설을 쓰면서 기진맥진했습니다. 오죽하면 머리가 다 벗겨졌겠어요.(웃음) 4·19를 넘어 5·18의 시대를 관통하는 대하소설은 실력있는 후배 작가들의 몫이죠. (나는) 쓸 여력이 없어요.”

조씨는 “어느 시대건 모순과 갈등, 부정, 부패가 있게 마련이다”며 “비인간적인 것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해 정화하려는 산소 같은 역할이 문학인의 사회적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차기작에 대해 조씨는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위치

를 바꾸고 있는 중국을 무대로 장편소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21세기 한국의 운명과 함께하는 중국을 소재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문화는 분단 때문에 북쪽 이상의 땅을 갈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무대가 남한으로 국한되는 비극이 있다”며 “남한에 국한된 문화적 상상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이 진행된 광주시청 대회의실은 강연시작 전부터 학생, 주부·시민 등 600여명이 몰렸고, 강의가 끝난 후 책에 사인을 받으려는 이들이 줄을 길게 늘어선 등 조씨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대기업 비리 파헤쳐... 20만부 팔려

■ ‘허수아비춤’은 조정래씨의 신작 ‘허수아비춤’은 ‘경제 민주화’를 화두로 대기업의 비리와 권력자들의 비밀을 신랄하게 파헤친 장편소설이다.

주인공 강기준을 둘러싼 생생한 인물들의 입말들과 속담이 빛을 발하고, 권법·불법 상속, 차명계좌, 비자금, 상납, 스카우트, 스톡옵션같은 상류 사회의 돈놀이가 파노라마적으로 펼쳐진다. 빠른 장면 전환, 세태와 풍속에 대한 풍부한 재현들로 성장의 빛과 그늘, 자본과 분배의 문제를 날카롭게 그려낸다. 지난 10월 출간 이래 베스트셀러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만 부가 판매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흔치 않은 기회... 베트남 미술 느껴볼까

광주시립미술관 내년 2월 6일까지 ‘베트남의 풍경과 정신’전

최근 아시아 미술의 두 거인 중국, 인도에 이어 동남아시아의 현대미술이 주목받고 있다. 오랜 식민의 아픔과 가난, 사회적 불안과 불공정, 부패와 폭력, 인종 및 종교 갈등, 전쟁 등을 경험하며 새로운 미술 담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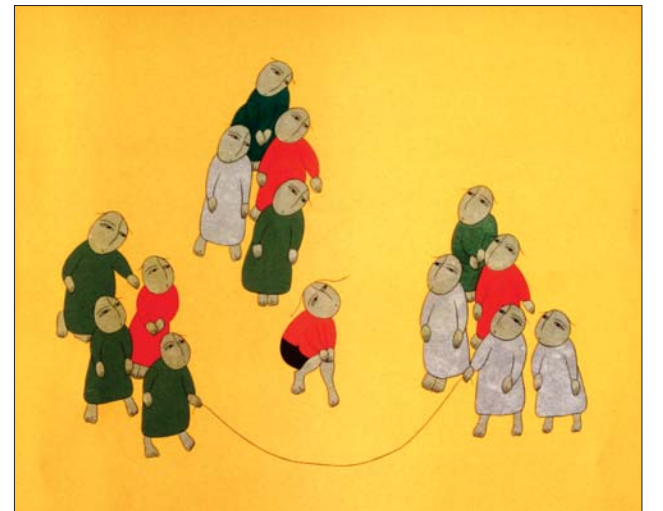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은 내년 2월6일까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미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베트남의 풍경과 정신’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구엔 반띠, 만 쩐, 탄 즈엥 등 베트남 대표작가 39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1940년대 작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현대 미술의 흐름을 비교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베트남의 미술을 다루는 전시는 민간차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됐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기획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왕조의 유물, 다양한 소수민족의 민속,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프랑스 식민지의 흔적, 그리고 베트남전쟁 등 작품의 주제가 다양하다.

또 베트남 북부에서 유행하는, 그림 표면에 옷나무를 덧붙인 래커 페인팅과 비단 위에 수묵으로 묘사하는 실크 페인팅 등이



따 티탄땀 작 ‘출범기’

색 작품과 7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베트남 목판화 등 볼거리도 풍부하다. 문의 062-613-714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 작가 선정

박소빈·박정용·오민정·이인성씨 뽐혀

지역 작가들의 해외 무대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3기 작가들이 선정됐다.

시립미술관은 21일 공모와 심사를 통해 3기 입주작가로 서양화가 박소빈(서양화), 박정용(조소), 오민정(영상설치), 이인성(서양화)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뉴욕 첼시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미국 화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소빈씨는 연필로 옹공 여인 신화를 그리고 있는 작가다. 또 박정용·이인성·오민정씨도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다. 이들 작가는 오는 2011년 1월7일~7월6

일 중국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창작을 할 수 있다. 또 창작센터 내 스튜디오 제공, 왕복항공료 지원, 생활비 일부 지급,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받는다.

광주시립미술관이 국내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현지에 오픈한 북경 창작센터는 베이징 따산쯔 환티에(環鐵) 창작예술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해성·전현숙·조강현씨 등 10명의 작가들이 이곳에 입주해 중국의 저명한 기획자나 평론가, 화랑 관계자와 함께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여는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쳤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술계 파워 1위 박명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 관장은 2위

올해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박명자 갤러리 현대 회장이 선정됐다. 박 회장은 미술 월간지 ‘아트프라이스’와 (사)한국미술시각정책협회가 미술관과 화랑, 아트페어 등에서 미술 작가와 관람객 등 7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한국 미술계를 움직이는 인물’에서 1위로 뽑혔다. 박 회장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갤러리 현대의 창업주로, 1970년 인사동에 현대 화랑을 열면서 우리나라 상업 화랑의 발전과 함께해 온 인물이다.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2위에 올랐으며 3위는 유희영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이 선정됐다. 이어 이호재 가나아트센터 회장과 오광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4, 5위를 차지했다. /연필뉴스

함정옥 피아노독주회  
오늘 유·스퀘어문화관

함정옥(남부대 음악학과 교수) 피아노 독주회가 22일 오후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20개의 아가자기한 소품으로 구성된 프록코피에프의 ‘덧없는 환영’ 현대음악의 거장으로 불리는 프랑크 작곡가 메시앙의 ‘8개의 전주곡’ 중 1번 ‘비둘기’와

2번 ‘슬픈 풍경 속의 환율한 노래다. 피날레 곡은 20세기 뛰어난 남미 작곡가로 꼽히는 알베르토 히나스테라의 ‘피아노 소나타 1번’이다. 전남대 예술대학과 독일 뉘른·로스톡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C.N.피아노, 피아스트라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해링展

# KEITH HARING

광주시립미술관 2010. 12. 8~2011. 2. 27

# 당당하게 일어서라!

수능준보 전인강무료

EBS 및 수능준보 인강의 최강의 강사진을 소개합니다

개강 12월27일[월]

## 2012 대입 정규 선행반

고개숙이지 말고,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일어서라!

### 대한민국 최저가 119만원

수능준보 회원은 게시판에 이름과 아이디를 남겨주세요

문의 전화 02-3431-820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97-14호 [서울 캠퍼스]  
041-862-3332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6-2 [세종 본원]

중앙 A+ 기숙학원  
www.jaa1.co.kr